▸ 가족·아동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및 상호작용 행동특성과 걸음마기 영아의 발달간 관계

박 혜 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김 말 경*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사)
최 지 현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사)

본 연구는 다른 시기에 비해 양육의 어려움이 많은 걸음마기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특성, 영아의 발달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며, 또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특성과 영아의 발달간의 관계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30쌍의 12개월에서 40개월 사이의 걸음마기 영아와 그들 어머니로서 울산시를 중심으로 표집 하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83)이 개발한 부모양육 스트레스 목록(PSI-Parenting Stress Index)을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와 영아간 10분간 자유놀이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Mash와 Terdal(1990)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놀이평가(PCIPA- Parent 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중 어머니 상호작용 측면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아의 발달은 박혜원, 조복희(2006)의 한국 베일리 영아 발달 검사 II를 실시하여 인지발달지수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T 검정,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상호작용 행동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상호작용에서 영아의 행동을 많이 침해하여 놀이를 촉진하지 못하였으며, 영아에게 칭찬과 긍정적 주의를 덜 하였으며,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이 부족하여 영아의 질문이나 활동에 덜 반응하는 행동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영아에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거나 칭찬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특성과 영아의 인지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에 비해 긍정적인 행동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영아의 인지발달이 또래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특성과 영아의 발달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경우 어머니가 영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영아의 인지발달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특성은 영아의 인지발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특성과 영아의 인지발달간의 관계가 달라짐을 밝혔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그 차이의 근원과 경로를 밝히는 보다 해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